

# 여순사건 75주년 학술 심포지엄 열린다

오늘 여수시청 회의실

명예회복위원회 2년 활동 공유

4개 주제 발표후 주제별 토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년간 활동을 돌아보는 학술행사가 여수시에서 열린다.

여수시는 15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여순사건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행사는 여수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여수지역 사회연구소(이사장 이영일)가 주관한다. 여순사건 유족과 시민 모두 참석할 수 있다.

여순사건 75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 2년간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순사건의 진상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여순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활동을 시작해 이달 2년을 맞게 된다. 이달 현재까지 진상규명·명예회복에 7100여 명이 신청했지만, 위원회의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이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날 정근식 전 진실화해위원회와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전쟁의 유산과 이행기 정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하며 총 4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노영기 조선대학교 교수가 ‘제14연대의 창설과 변화-지위전 연대(聯隊)를 찾아서’, 김인덕 청암대학교 교수는 ‘일제강점기 전남 동부지역 민족운동-여수, 순천, 광양, 구례의 경우’, 광경상 연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파괴와 재건-여수 도시 공간의 굴절과 개발’ 등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주제별 토론에는 김종민 제주 4·3진상규명

위원, 정호기 우석대학교 교수, 강성호 전남대 호남학과 박사과정, 김태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가 참여한다.

여수시는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여순사건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점을 진단할 방침이다.

또 여순사건으로 파괴된 여수의 도시 공간이 어떠한 문제의식과 주체들의 활동 속에서 도시 재건·개발을 진행했는지 역사적 문맥 속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14연대의 창설과 부대 운영을 분석하고, 일제강점기 전남 동부지역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민족운동 양상을 파악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여순사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시장 정인화·가운데)가 지난 12일 내년 광양매화축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내년 광양매화축제 길러콘텐츠 발굴 차별화

기본계획안 전문가 토론회

해마다 100만명 이상 찾는 ‘광양매화축제’의 핵심 관광 요소를 발굴하기 위해 광양시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광양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회의실에서 23회 광양매화축제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관광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광양매화축제 차별화를 위한 의견을 냈다. ‘보이는 라디오’ ‘하이볼 제조’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봄 대표 축제인 광양매화축제에는 올해 122만 명이 다녀가는 등 해마다 100만명 이상 관광객을 기록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매화축제는 예전의 방식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진화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통통 튀는 생각이 광양매화축제의 성공을 이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성공적인 ‘23회 광양매화축제’ 개최를 위해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회, 적정성 자문회의를 거쳐 축제 기간, 추진 방향·주제, 주요 행사 등을 확정짓고 광양시 축제위원회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본격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노관규 순천시장 ‘월드CEO 서밋어워즈’ 정책혁신 부문 수상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공로

노관규 순천시장이 ‘제1회 월드CEO 서밋어워즈’에서 정책혁신 CEO 부문에서 수상했다.〈사진〉월드 CEO 서밋어워즈는 국가와 세계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인과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책혁신과 해외협력, 기업혁신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씨오가 주최하고 WCSA 조직위원회 및 더마블스가 주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한국불특체인산업진흥협회 등이 후원했다.

노 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생태라는 독보적 가치로 지역의 변화는 물론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미래도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책혁신 CEO 부문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정우택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



노관규(왼쪽 네번째) 순천시장이 지난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월드CEO 서밋어워즈(World CEO Summit Awards)에서 정책혁신 CEO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술부 장관,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방소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순천이 증명해

보였다고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원박람회 7개월간의 노력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순천시청 별관 장천동 메디컬프라자로 이전

순천시가 순천시청 별관을 내년 1월 장천동 메디컬프라자(중앙로 66)로 이전한다.

현재 시청 별관이 있는 장천동 덕정빌딩(장명로 45)은 건물 임차 계약이 만료된다.

이 건물은 순천시가 지난 2013년부터 빌려 사용해왔다. 공간이 좁고 시설이 오래된 이유 등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시청 별관이 들어설 곳은 순천중앙병원 옆 건물이다. 올해 5월 준공한 9층 규모 신축 건물이다. 별관에서 업무를 보던 순천시 7개 부서가 오는

2026년 12월까지 이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별관은 시청 인근 대로변에 있어 접근성이 편리하고 건물 내 민원인 주차장 이용이 가능해 방문하는 시민의 만족도가 개선될 것으로 순천시 측은 기대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전으로 인해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12월 내 별관을 완전히 이전하고,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준비를 마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청 별관이 들어서는 장천동 건물 전경.

## 고흥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고흥군이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한다.

고흥군은 전기·가스·수도 요금 체납 가구, 기초생활보장 신청 탈락 가구, 시설보호자 가구를 우선으로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실직·질병·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과의 협력도 강화해 식품 등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고흥군은 올해 위기 상황에 부딪친 239명의 군민을 발굴, 2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으로 구성된 복지발굴단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소득 위기가구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곡성군 ‘어르신들 인생이야기’ 구술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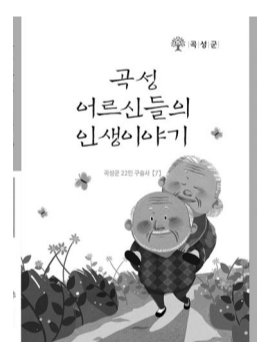
곡성군이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일곱 번째 구술집(사진)을 발간했다.

‘어르신들 인생 이야기’는 80세 이상 지역민 가운데 11개 읍면별로 각각 2명씩 총 22명을 선정해 그들의 삶을 기록한 구술집이다.

274쪽에 걸쳐 정리된 이야기들은 어르신들의 삶의 여정을 다루고 있다.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통해 그들의 삶과 지혜를 공유한다.

구술집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같은 한국 현대사의 어려운 시기를 몸소 겪어왔다.

이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는 어려움을 웃음과 함께 극복하고, 과거를 돌아보게 한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어르신들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박물관 같은 가치 있는 보물로 개인의 역사를 넘어 스러워져 가는 우리 지역 공통의 자산”이라며 “구술집이 발간되는 과정과 결과가 곡성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밑거름이 돼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어 가는데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